

국내 기술의 結晶 — 방위산업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을 지향하던 우리 경제의 位相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무역수지 적자의 그림자와 함께 경제난국의 타개는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기술경쟁력의 저하와 기술개발의 소홀에 있다는데, 심각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소련과 東歐의 체제변혁으로 新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세계는 본격적인 경제전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선진각국은 「국경없는 무역」의 기치아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보호의 벽만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이 없이는 냉혹한 국제질서속에서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기처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해외기술의존도가 무려 22.3%에 이른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수준은 미국의 9.8%, 일본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품 해외의존도는 휴대전화의 경우 80~1백%, 차량전화 60~70%, 무선호출 50~70%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술력의 不在에서 비롯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때, 이제부터라도 기술로 승부를 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기술貧國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추진에 이어,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한 기술혁신운동이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할 절박한 시점입니다.

현재 기술개발의 커다란 장애요인은 기술이 곧 매출에 반영되는 기업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급한대로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自力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술은 투자와 사람이며, 이를 통한 축적입니다. 日本기업들은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를 매년 15%씩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매출액이나 설비투자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요원이 5만명이나 늘어난 사실은 주목해야할 점입니다.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東西화해의 분위기를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을 대폭 증대하여, 이를 산업기술 개발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UR(우루과이라운드)등으로 개별적인 산업지원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이제 이러한 힘은 국방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방위산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기여와 함께 국내기술개발을 선도해왔으며, 우리 軍이 소요로 하는 재래식 기본병기의 양산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10여년만에 재래식 무기체계의 소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최근 소련의 와해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안보위협도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적 관점에서의 방위력 현주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휘통제체계나 정보수집의 면등에서 볼때 우리의 방위력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상상할수 없었던 적과의 싸움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차 미군이 철수한다고 볼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1백억불 내지 2백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첨단과학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해가는 오늘날의 추세에서, 우리에게 현대전을 수행할 무기체계가 극히 미약하며, 이를 제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지난 70년대초 이 땅위에 방위산업이 태동하던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안보위협의 변화와 함께 이제 우리 방위력의 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에 뛰어들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방위력은 주변국에 대비한 자위력은 고사하고 억지력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주변국의 정황은 李朝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방력은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커가는 것이며, 지금은 장차 한국의 안보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독립국가 가운데 방위산업을 토대로 한 자위력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UR 등 對外적인 면이나, 우리경제의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방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位相 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意志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국방연구개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운 국방기술의 개발은 물론 기반기술의 개발을 강화하여 방위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와함께 국방연구개발과 여타 公共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연계할수 있는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壬申年 을 한해에도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



UR 등 對外적인 면이나, 우리경제의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방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位相 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意志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